

■ ‘골프 지존’ 신지애의 2008년 꿈

“LPGA 정상에 꼭 오를거예요”



‘미소천사’ ‘골프계의 여자 타이거우즈’ ‘기록재조기’로 불리우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지존’ 신지애(19·하이마트)는 지난해만 10승(2008시즌 개막전 포함)을 올렸다. 한 해 10승 기록은 한국 남녀 골프에서는 처음이며 대회가 많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대기록이다.

2007년 시즌 9승을 거둔 신지애는 ‘단일 시즌 두자릿 수 우승’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 수립은 무산됐지만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한국여자프로골프 2008 시즌 개막전 차이나레이디스오픈에서 우승하며 2008시즌도 변함없는 활약을 예고 한 신지애프로를 만났다.

전남의 자랑스러운 딸인 신프로는 “올 시즌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며 “훌륭한 골퍼가 되는 것도 목표지만 사람냄새 나는 골퍼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음은 신지애와 일문일답

-지난해 시즌 9승의 대기록을 세우며 2006년에 이어 최고의 해를 보냈는데 감회는.

▲시즌 9승을 올렸다는 사실이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잘치킨 했지만 시즌 9승이 아니라... 2006년 시즌 후 2007년 시즌 목표를 5승으로 잡았으나 9승을 올렸으니 스스로가 생각해도 대견스럽다. 특히 프로 2년차 징크스에 빠지지 않아 다행이다.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었으나 극복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지난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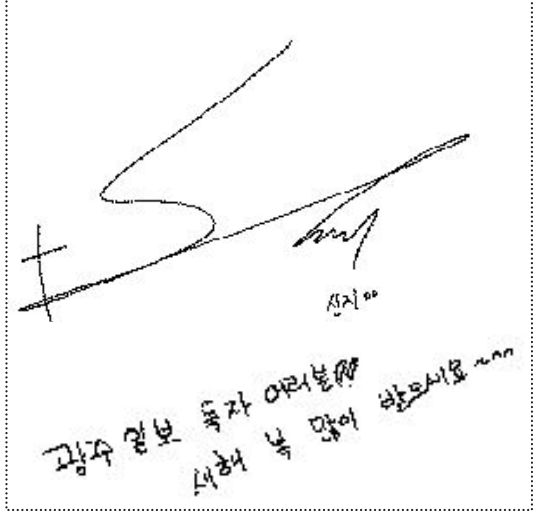
▲프로2년차 징크스에 시달리는 듯했으나 시즌 첫 대회인 MBC투어 엠씨스퀘어컵 크라운CC 여자오픈 대회에서 7타차 역전 우승을 하면서 징크스도 털어버리고 2007년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 앞으로 골프 인생에서 의미있는 대회로 기억될 것 같다.

-지난해 시즌 해외대회 출전이 많이 늘었다. 국내대회와 비교한다면.

▲해외대회라고 해서 국내대회와 별반 다를게 없다. 국내 대회도 규모나 여러가지 면에서 해외대회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어릴때부터 우상으로 여겼던 쥘리안스나 오초아 같은 대선수와 같이 플레이하게 된 것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다.

-상금 10억원을 넘기며 상금왕 2연패를 달성했고 ‘미소천사’로 불릴 만큼 많은 선형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맡겨 놓은 상태. 불안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 좋은 성적으로 상금이 쌓이면 더 좋은 일을



▲최근에는 초반부터 성적이 좋을때도 많다. 특별히 뒷심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 뒤지고 있어도 우승 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다. 하지만 우승을 많이 하다보니 이븐파만 쳐도 주변에서 성적이 부진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만큼 지난해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지만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다.

-드라이버 OB(Out of Bounds)를 내지 않는 선수로 유명한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세컨 샷에서 OB를 내놨지만 드라이버는 지난 시즌에도 한 번도 내지 않은 것 같다.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OB를 내지 않는 골퍼라는 이야기를 해주 더듬더듬 정확한 골퍼를 할 수 있게 됐다. 주변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지난해 대학생(연세대)이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

▲최근 기말고사를 봤다. 대회 출전으로 수업을 많이 참가하지 못하지만 시험 후 수업도 듣고 학교생활에도 충실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하지만 캠퍼스 생활을 즐길 여유는 없어서 아쉽다.

-주변에서 ‘빨리 미국으로 가라. 우리도 우승 좀 하자’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올 시즌 보완할 점은.

▲피우고 골리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숏 어프 로치를 보완하고 싶다. 다른 스윙은 아직까지 교정할 마음이 없다.

-앞으로 계획은.

1월 7일 연세대 전지현편과 남아공 월드컵 대회, 호주 대회와 미국 LPGA투어 등에 출전하게 될 것 같다. 2008년도 바쁜 한해가 될 것이다.

-고향분들께 한마디.

▲항상 응원해주시는 고향분들께 감사드린다. 고향에서 많은 대회가 열리면 고향분들을 자주 볼 수 있을 텐데 대회가 적어 아쉽다.

2008년도도 좋은 성적으로 고향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다. 훌륭한 골퍼로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람냄새가 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매 경기 최선 다하면 좋은 성적 거두겠죠 불우이웃도 돕고 싶어요”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난 해 생일 날 BMW 5시리즈를 선물해 주셨다. 소형차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안정성을 고려해서 아버지가 조금 큰 차를 사주신 것 같다. 대회 출전 등 국내에 있는 시간이 짧아 이용할 시간이 없어 안타깝다.

-지난해 시즌 30차례 대회출전을 했는데 체력유지 비결은.

▲시합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쓴다. 특히 음식조절은 고기를 먹지 않고 배불리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과일과 야채를 주로 먹는다. 홍삼과 비타민제를 항상 복용하고 장어를 좋아한다.

항상 대회에 참가하면 11시간 시스템(잠 8시간, 연습 3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US오픈 대회에서 수면이 부족해 처음으로 부담을 느꼈다. 제대로 잘 수 있었다면 집중력을 발휘해 6위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9승 중 6개대회에서 역전우승을 했다. 특별히 뒷심이 좋은 이유가 있는가.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1월 2일 개강

17층 행정고시학원

361-8111 / 529-8111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1월 2일 개강

전남고시학원 236-2467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1월 2일 개강

광주고시학원

337-5000 / 171-0002

산영안내

안경, 렌즈, 콘택트렌즈

171-0002